“어두움 없애려 말고 화두 등불 하나 켜세요”

4월 13일 혜국 스님 법문



금아 혜국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해 평생 간화선 수행에 매진해왔다. 1989년 제주도에 남국선원 무문관을 개원하고, 2003년 충주에 석종사 금봉선원을 창건해 스님들과 재가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2005년 전국선원수좌회 간화선 수행지침서 편찬위원장으로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을 편찬했다.

이번 담선법회는 우리에게 발심을 도와주신 크나큰 스승 한 분 한 분을 의지해서 간화선과 같이 발심해 보고자 하는 법회입니다. 저에게는 성철 큰스님이라는 어른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타고 나기를 귀한 집에서 타고났고, 제가 모셔본 어른 중에서는 기억력이 가장 출중한 어른입니다. 머리가 워낙 명석하신 데다 동서고금의 책이란 책을 엄청나게 봤다고 합니다. 많은 책을 봐왔는데, 서산 대사가 쓴 문집에 있는 ‘아유일권경(我有一卷經) 불인지묵성(不因紙墨成) 전개무일자(展開無一字) 상방대광명(常放大光明)’ 구절을 보고 무릎을 쳤다고 그래요. 그분은 스물다섯 전에 그런 글을 보고 크게 무릎을 치고 출가했는데, 저를 비롯해 우리는 왜 그러한 구절을 보고 생명을 못 바칠까요.

그 어른은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 참 생명을 모르고 있는 동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길로 대원사로 가서 거사로서 얼마나 정진을 열심히 했는지, 본인 말로 주위에서는 물론이고 정중일여(靜中一如)를 체험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자신을 안 놓치고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없어졌는가. 내 모든 분별심이 없어지고 ‘오직 모를 뿐’ 오직 화두 하나로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는 잘 됩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며 동정일여(動靜一如)가 되느냐. 움직이면서 남에게 욕을 듣고 말을 하면서 화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그 어른은 대원사에서 그걸 체험했다고 그래요.

아유일권경, 여러분들이나 나나 누구에게나 한 권의 경이 있는데. 전개무일자, 아무 글자도 없습니다. 종이나 먹으로 인연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성(空性).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권의 경. 그걸로 듣고 말하는 건데요. 성철 큰스님은 그 한마디를 듣고 대원사로 갔죠. 우리도 언젠가는 내 마음의 경을 찾아서 ‘반드시 한번 출가 하리라.’ 이런 원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일들은 눈 감을 때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역대 영웅호걸, 절세미인들이 전부 다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온 거 알면서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과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가져갈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권의 경전. 성철 큰스님이 해인사 백련암에 가서 출가시(詩)를 지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속으로 출가시 하나를 지어보길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그분을 참 많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매를 많이 맞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자다운 제자는 딱 맞고 나면 “스승님 고맙습니다”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먼저 났어요. 이게 공부의 차이였구나, 내 안에 이렇게 업이 많았구나. 그 노장님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새벽 2시만 되면 회초리를 챙겨 와서 두드려 주는 걸 왜 그렇게 고맙게 못 받아들였을까. 내 안에는 도를 찾는 마음보다 업이 더 많았구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땅에 태어나 부처님 제자가 되어 그 가운데서 참선법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면, 오온(五蘊)이 개공(皆空)이라. 불생불멸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 법당, 이 강의실을 옛날 스님들과 신도들이 지었어요. 왜 지었습니까? 앉아 있을 공간 때문에 지었지, 벽이나 지붕이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허공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허공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물어집니다. 이 집은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안 만들었으니까. ‘불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집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허공은 안 없어지니까. ‘불멸’이에요. 허공은 불생불멸입니다.

한평생 우리를 상대로 가르친 게 중도(中道)입니다. 내 몸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수백 번 배우는 ‘오온개공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색이라는 건 몸뿐이 아니고 모여진 것을 몸이라고 해요. 몸은 인과예요. 오온이란 인과대로 움직이는구나. 먹으면 살이 찌고, 안 먹으면 빠집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 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강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바다로 흘러가니, 실체가 없으니 공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연기법이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은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생각, 너라고 하는 생각, 밉다 곱다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생각과 감정을 텅 비워 마침내 빈 그릇이 된 것. 그걸 두고 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철 스님 출가 일화서 중도 깨달아
집은 무너져도 허공은 애당초 ‘불멸’
‘오온개공’은 생각·감정 비운 상태

이란·미국 전쟁도 욕망에서 비롯돼
욕망과 지혜가 둘이 아님을 모를 뿐
마음 다스려야 진정한 평화 다가와

내가 스물두세 살 때였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가 안될까. 5분도 안 돼서 어머니 생각, 옛날 내기에서 먹다 남은 자장면 생각,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 사람 생각. 그렇게 망상이 떠올라요. 연속극을 보거나 축구를 볼 때는 왜 망상이 안 들어올까요. 흙탕물을 계속 휘저으니까 찌꺼기가 안 보이죠. 기도나 참선을 하면 휘젓는 걸 딱 중단하니까 가라앉은 만큼 찌꺼기가 보이는 거예요. 망상이 들어오면 이건 바깥에 있다. 내 안에 망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도둑놈이 있구나. 이것을 화두로 바꾸고 이걸 부처님께 바치는 거구나. 내 안에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구나. 미워할 게 아니라 번뇌 망상을 사랑하는 법이 간화선 법이라는 겁니다.

한번은 성철 스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했어요. 참선은 안되고 졸리기는 어찌나 그렇게 졸리던지요. 이렇게 공부가 안될 바에는 석굴에 올라가서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오자고 그렇게 2.2㎞를 올라가서 울었어요. 그렇게 울기도 많이 울고 “물러나지 않겠다, 지켜봐 달라”고 발원했어요. 그러고 내려온 그때 성철 스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스님은 4년 만에 깨달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도가 안됩니까? 공부 좀 되게 해주십시오.” 노장님이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아. 땅에서 넘어진 자가 어딜 짚고 일어나는가. 땅을 짚고 일어난다. 몸이 근질거리고 아프고 안되면 안된 데서 되도록 하고 일어나야지.” 지금도 이게 가슴에 확 남아 있어요. 안되면 안되는 그 자리에서 되도록 만들어 놓고 나가야 공부라는 게 된다. 안된다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니까 공부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대무심지(大無心地)가 돼야 합니다. 대무심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해서 걸어온 어지러운 발자국을 놓아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공부가 안된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게 다 어두움이에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공부 안되는 데서 공부가 잘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대답은 어두움은 없앨 수가 없다. 깜깜한 방을 걸레로 닦아내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내도 쓸어낼 수가 없다.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말은 번뇌 망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등불 하나만 켜버리라는 말이에요. 어둠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밝음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니까요. 번뇌 망상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게 번뇌 망상이니까요. 그러니 번뇌 망상과 싸울 게 아니라 그 번뇌 망상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지혜 등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려고 태어났거든요. 제발 마음공부 좀 하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인생 백 년 천 년 산답니까. 눈 딱 감을 때 아들도 딸도 집도 다 남이 될 때, 나는 누구인가 할 줄 아는 그놈. 그놈이 바로 지혜광명(智慧光明)입니다.

이 공부는 미세한 망상까지도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모를 뿐인 게, 안다 모른다를 할 게 아니라 대무심지에 들어가서 중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거다’ 하면 이런 거라는 생각이 일어난 다음 거고. 화두는 깊은 잠 속에 꽉 들면 그냥 ‘이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화두 참선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나 간화선을 듣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은 불교의 ‘불’ 자, 참선의 ‘참’ 자가 안 붙어도 좋다 그래요. 중생들만 행복하고 마음 닦으면 그게 바로 간화선입니다. 어둠을 없애지 말고 등불 하나 켜면 됩니다. 등불은 대무심지이고, 대무심지는 중도이며, 중도는 불생불멸입니다. 연속극 제발 좀 적게 보고요. 뷔페나 커피숍 좀 덜 다니고요. 커피숍에 앉아서도 ‘나를 끌고 다니는 여기 나는 누구인가’ 보고요.

100년 전에는 밥 굶지만 않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4~50년 전에는 민주화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하고 괴로워하니. 마음 다스리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미국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세요. 죄 없는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은 채로 찢겨 가는 저 죽음.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마음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동안 결코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욕망과 지혜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뿐인 화두가 돼서 등불 하나 켜면 그거야말로 세계 평화입니다.

정리=이현희 수습기자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70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병오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기남부지사		H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H 010-5323-0834	
부 산 지 사	이도경	H 010-5640-8883	
경 남 지 사	성낙두	H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H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동제	H 010-8642-7733	
대구경북지사	김선행	H 010-4152-4376	
충 청 지 사	유재상	H 010-8341-0560	
강 원 지 사	이동격	H 010-7339-868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